

주일 예배 10시 50분

2018년 1월14일(둘째 주)

\*표의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b>예배로의 부름</b>		인도:김성진 집사
<b>찬양</b>		
<b>*기도</b>	주기도문	다 함께
<b>*찬송</b>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79장)	다 함께
<b>*교독문</b>	64번	다 함께
<b>*찬송</b>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40장)	다 함께
<b>기도</b>		김영자 권사
<b>찬송</b>	내가 매일 기쁘게(191장)	다 함께
<b>말씀</b>		고명환 목사
-그리스도 예수: 9. 이성을 초월하는 능력(요한복음 11장 38-44절)		
<b>*찬송</b>	어저께나 오늘이나(135장)	다 함께
<b>교회소식</b>		담당자
<b>기도</b>		담당자

**교회소식**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금주 입을 성경: 시편 94-100편, 여호수아

-우리의 기도:

1.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명 속에 자라게 하소서
2. 세계 도처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3.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4. 청소년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모임시간** 주일 10시50분, 수요일 오후 7시, 월-금 오전 5시20분, 토요일 오전 6시

**순례자의 목상**

**말씀을 믿도록 가르치라**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 3:14~15).

부모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오는 당신 자녀들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녀가 그 보화를 알고 사랑하고 소유하도록 인도할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혜롭고 올바르게 하는 것이 진실한 당신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모든 지혜로 당신 안에 충만히 거하도록 하십시오. 약속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만약 그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생활이 거짓 없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살며 즐거워하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믿음은 당신의 자녀에게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조용한 확신은 그 자체가 우리 자녀에게서 느껴지도록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만약 말씀을 그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법을 모르고 혹은 그들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을 본다고 종종 느낀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에게는 그 일을 하시고 말씀을 효과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도하고 믿으십시오.

당신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말하며 사는 그 말씀을 당신 자녀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씨가 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다만 빈 그릇되게 하소서

안미영

예수님!  
불러볼수록  
친근하고 달콤한 이름.  
주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고 있었다라면...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영안의 주님을 더 깊이 알수록  
나의 만족은 주님 한 분 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가슴 깊이 목상하며 불러봅니다.

건강 허락하심 감사하며,  
기회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일꾼 되겠노라 다짐하지만,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 내 자아를  
처리하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  
언제나 주님의 긍휼로 새롭고  
기대감 넘치는 하루를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망이신 예수여!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는 다만 당신을 담은 빈 그릇으로,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주님 향해

이성준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나의 영혼을 방황과 무의미속에서  
지켜주신 주님!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면  
공허한 마음으로  
쓸모없는 나그네로 살아갈 자를  
땅 끝에 선자로  
주님 보좌 바라보며 살게 하신  
자비하신 주님께 아뢰어보겠습니다.

새해의 다가올 일들  
시간과 공간속에 주님께 집착하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향합니다.

오늘에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고  
부르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다면  
주님 주신 안식 속에 열심히  
주님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PALOUSE KOREAN CHURCH



2018년 1월 14일(2주)

1205 SE Professional Mall Blvd Ste 115

Pullman, WA 99163

Phone 978-807-4092

Website: pullmanpkc.org